

요리를 통해 맛보는 인류 문명의 발전사

탐식의 시대

레이철 로던 지음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수많은 전투로 단련된 로마 보병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이런 로마 전사들이 전쟁에 맛들을 짚어지고 다녔다. 야영지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기 위해 맛들이 필요했다. 로마가 더욱 강성해졌던 이유도 효율적인 맛들의 개발 덕분이었다. 기존의 맛들을 사용하던 한 개 분대(8명)가 먹을 곡식을 가는 데 네댓 시간이 걸렸지만 로마가 개발한 신형 맛들은 한 시간 반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음식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식의 역사를 연구해 온 레이철 로던의 신간 '탐식의 시대'는 요리를 통해 인류 문



당대의 정치·경제·사회 체계 요리 안에 담겨
음식 대량생산은 도시·국가·군대 지탱하는 힘

명의 발전사를 설명한다.

저자는 요리와 음식은 어느 때건 분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한다. 요리 안에 당대의 사회·정치·경제적 체제, 건강과 질병, 윤리와 종교에 대한 신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요리는 시대의 요리 철학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재료나 조리법, 음식, 식사 방법이 모두 다르다. 또 요리는 때로 특정 지역과 계층의 요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요리, 제국의 요리가 되기도 한다.

저자는 오랜 요리의 역사에서 1880~

1914년의 시기가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그 이전까지 부자와 권력자들은 소위 프랑스 고급요리를 먹었고 시골 빈민들은 하급 요리를 먹었다.

하지만 이 시기 중산층과 임금노동자들이 식품가공업의 소비자로 급부상하면서 음식 문화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왕과 귀족이 먹는 고급요리와 평민이 먹는 하급요리가 분명히 구분됐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프렌치 프라이(감자튀김)도 지난 1900년대 초반 해외 프랑스의 고급 요리였지만 1965년 맥도날드가 냉동감자를 이용한 프렌치 프라이를 내놓으면서 누구나 쉽게 먹

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

음식의 대량 생산은 국력과도 관계가 있었다. 더욱 많은 음식을 이룬 시간에 만들어 내면서 도시, 국가, 군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실제 로마의 대규모 제빵 시설과 생선 소스 공장, 불교 사원의 차 가공 시설, 네덜란드의 청어 생산 공장, 프랑스의 사탕 무 정제소 등이 운영됐다.

저자는 또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의 요리와 이들 종교 관련 요리들이 정치상황과 결부돼 어떻게 전파되고 해당 지역의 요리 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는 등 종교와 요리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불교가 한국과 일본의 요리를 바꿨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불교 요리가 몽골 요리의 침략과 함께 사라졌다.

〈다른세상·2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36년 미국 뉴욕시의 핫도그 가판대. 맨해튼 웨스트가의 모퉁이에서 한 행상이 열을 넣은 차가운 레모네이드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핫도그를 선전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세상 제국〉

미학자 진중권이 만난 예술 거장들

예술가의 비밀

진중권 지음



인터뷰어의 최고 미덕은 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런 질문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자료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고,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깊어야 한다. 그가 만약 예술가라면 그의 창작품을 섭렵하는 건 기본이다.

미학자 진중권이 우리 시대 예술 거장들을 만났다. 신작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dms 출판사 창비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창비 라디오'의 '진중권의 문화 다방'을 통해 만났던 이들과의 기록이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실린 인터뷰 들은 깊다. 진중권은 예술가로부터, 어느 인터뷰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내용들을 끌어내고, 그 답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는 화가, 사진작가, 건축가, 영화배우 등 모두 8명을 만났다.

영화 '경마장 가는 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얼없이 싸우는 배우' 문성근에게는 정치 활동 때문에 가려진 '배우'로서의 삶을 궁극하며 그의 끝없는 에너지의 근원을 묻는

다. '배우는 거대한 조직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 오는 동안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라는 문성근

의 말이 인상적이다.

22년간 대중음악 평론을 하며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친한 인물이었던 신해철이 죽고 난 얼마 후 진행된 대중음악평론가 강현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전체를 만날 수 있다.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글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시각디자인 안상수와와의 인터뷰, 건축을 통한 삶의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건축가 승효상의 인터뷰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기행을 일삼는 소설가이고, SNS 대통령으로만 소개되는 이 외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인터뷰, 사진작가 구본창, 미술가 임옥상,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과의 만남도 있다. 〈창비·1만6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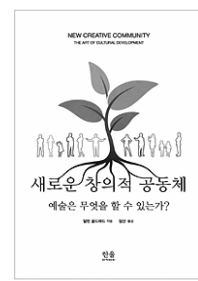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생각해봤어?**=왕년의 투사 노회찬, 왕년의 장관 유시민, 왕년의 논객 진중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을 쏟아내는 대한민국 사회 예언자이자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지식마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능가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14가지 질문을 던진다. 뉴스에서는 들을 수 없는 냉철하고 핵심을 찌르는 시각과 사전을 능가하는 집약지식의 향연에 머리는 꼭 채워지고 기쁨은 시원해진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000원〉

▲**방랑기**=일본 쇼오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하야시 후미코의 대표작. 어릴 때부터 행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여러곳을 전전하고, 토요일의 빈민가로 흘러들어 갔는지 잘몰라 생계를 꾸리면서도 문학적인 열망을 놓지 않았던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어려운 시기를 견디던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샀다. 제국주의 침 〈웅진지식하우스·1만6000원〉

어린이 책

▲**괴물 요리사**=염소를 잡기 위해 떠나는 트롤의 여행.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해적의 여행. 다리 밑에 사는 트롤과 바다에 사는 해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여행을 떠난다. 여행 끝에 트롤은 염소를 잡기 알맞은 상자를 발견한다. 여행 끝에 해적은 보물이 들어 있을 것 같은 상자를 발견했다. 해적과 만난 트롤한테는 앞으로



라이 한창이던 1920년대 후반에 연재를 시작, 대공황의 와중에도 60만부나 팔리는 기록적인 인기를 누렸다. 〈창비·1만4000원〉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예술과 사회정의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는 알린 골드바드가 시작예술가, 미디어예술가, 공연 예술가 등이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성과들에 주목했다. 개별 예술가들과 문화적 리더들이 만든 단체들의 미션, 그것들의 성장과 발전, 소멸에 대한 기록들을 살폈고, 행동가들의 기법과 방법을 기술한 지침서를 독해했고, 철학적·실제적 질문들을 고찰한 논문도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한울아카데미·2만3500원〉



어떤 일이 벌어질까? 〈Kinderland·1만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물속 생물 이야기**=20여 년 동안 끈질긴 관찰과 연구를

공동체 문화개발을 규정하고 유지하는 데 가치를 부여한다. 〈북카라비·1만5000원〉

▲**판문점 체제의 기원**=한국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그것이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이나,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이 책은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의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전쟁 자체가 처음부터 내전이나 국제전 같은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원들과 맞물려 그 가장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후마니타스·2만7000원〉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미국 보스턴의 빅데이터 기술 벤처기업인 소시오메트릭솔루션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벤 웨이버의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 엄청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북카라비·1만5000원〉

▲**비**=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 시인 원구식의 세번째 시집. 시 한 편을 오래도록 고치고 다듬어 속성시키는 성정 덕에 등단 후 첫 시집을 출간하기까지 13년이 걸렸고 이번에도 두번째 시집이 나온 지 8년이 흘렀다. 시집에 수록된 36편의 시들에서 실질적 현상과 과학적 사실들은 시적 주제인 '나'의 상상적 경험과 만나 '시적 사건'으로 전환된다. 〈문학고지서사·8000원〉

경, 분위기 연출을 오로지 목탄 하나로 표현했다. 〈그림책공작소·1만1000원〉

▲**장량**=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환골탈태했던 '장량'을 사마천의 원문과 학생들의 대화로 읽는 독특한 동양 고전. 원문을 흐름상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그림은 마치 발레 무대에서 손동작 하나, 눈빛 하나가 예술이 되듯이, 오로지 소녀의 동작과 표정에 집중하고자 주변 배경, 색의 혼재도 최소화했고 캐릭터와 배 〈평사리·9000원〉

NAVER **단비플라워** **30% 할인**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송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장덕동 사무실 8층 826㎡ 임대 보 1억/ 월 390만
- 치평동 사무실 4층 300㎡ 임대 보 5천/ 월 300만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목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담양군 월산면 장곡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지 매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소하고 로로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